

서울 집값 선도 9억 이하 아파트... 관악·도봉 '꿈틀'

매매가 변동률 0.06%... 0.03% ↑
코로나19로 집보여주기 꺼려 한산
전세시장은 매물 부족으로 오름세

서울은 9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수요로 교통 호재가 있는 관악, 노원, 도봉, 구로 등이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중개업소를 찾는 발걸음이 줄고 집보여주기를 꺼려하면서 한산한 모습이 다.

2월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인 부동산 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2월 28일 기준)은 전주 대비 0.03% 상승한 0.06%로 집계됐다. 재건축 아파트는 0.01%, 일반 아파트는 0.07% 올랐다. 이밖에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각각 0.03%, 0.12% 상승했다. 전세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봄 이사 수요가 크게 늘지 않았다.

서울 매매가는 중저가 아파트 수요가 이어지면서 ▲관악(0.26%) ▲노원(0.25%) ▲도봉(0.23%) ▲구로



노원, 관악, 도봉 등이 서울 아파트 가격 오름세를 이끌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경

/정연우 기자

(0.18%) ▲동대문(0.18%) ▲강북(0.13%) ▲성북(0.13%) 등의 순으로 올랐다.

관악은 신림동 건영3차, 신림푸르지오를 비롯해 봉천동 두산, 성현동아 등이 400만~1250만원 상승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지원센터 팀장은 "9억원 이하 아파트는 규제나 가격 부담이 적어 수요가 몰리고 있는 데다 노원, 관악 등 지역은 개발 호재가 예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오름세는 이어질 예정"이라며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수요가 줄면서 상승폭이 다소 줄

어릴 가능성은 있다"고 전했다.

노원구는 왕십리역에서 미아사거리역을 지나 노원구 상계역을 잇는 동북선 도시철도가 오는 2025년 완공예정이다. 개통되면 왕십리역(2호선·5호선·경의중앙선·분당선), 제기동역(1호선), 고려대역(6호선), 미아사거리역(4호선), 월계역(1호선), 하계역(7호선), 상계역(4호선) 등 기존 8개 노선, 7개역에서 환승이 가능하다.

관악구는 9호선 셋강역에서 시작해 2호선 신림역을 지나 서울대까지 연결되는 신림경전철이 오는 2022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 차량기지 1개소와 환승정거장 4개소를 포함한 모두 13개의 정거장이 건설되며 신림경전철이 개통되면 셋강역에서 서울대입구까지 출·퇴근시간이 40분에서 16분으로 약 24분 단축된다.

노원은 상계동 상계역대림과 상계주공7단지, 중계동 경남아너스빌, 신안 등이 1000만~2000만원 올랐다. 도봉은 방학동 신동아1단지과 창동 상계주공19단지, 쌍문동 한양7차 등이 250만~1500만원 상승했다.

한편 2주 전 일제히 마이너스 변동률

을 기록했던 강남, 서초, 송파는 재건축 단지의 하락세가 주춤해지면서 지난주 보합권(0.00~0.01%)에 머물렀다.

2·20 정부규제 이후 코로나19 여파가 겹쳐 대면 접촉이 불가피한 부동산 거래 시장은 침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지하철 4호선 노원역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매수문의가 줄어든 편은 아니지만 대면 접촉을 꺼려한 집주인들이 집보여주기를 꺼려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 전세시장은 매물 부족으로 오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관악(0.14%) ▲강남(0.10%) ▲성동(0.10%) ▲성북(0.10%) ▲동작(0.09%) ▲강북(0.08%) ▲양천(0.08%) ▲종로(0.08%) 등이 올랐다. 관악은 봉천동 벽산블루밍, 동아, 두산 등이 500만~1000만원 상승했다. 강남은 도곡동 타워팰리스와 대림아크로빌, 삼성동 쌍용플래티넘, 진흥 등 대형면적이 5000만~7500만원 올랐다.

/정연우기자 yw964@metroseoul.co.kr

'비규제·철도개통 호재' 인천 1.4만 가구 분양

수인선·GTX 등 3개철도 개통 앞둔
코로나19, 4월 총선 등 일정 변수

올봄 인천 부동산시장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인천시장은 '철도 개통'과 '비규제지역'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2월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3~5월 인천은 13곳에서 1만4611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과 4월 총선이 분양 일정의 변수다.

인천은 올해 3개의 철도가 개통, 아파트 분양 열기에 불을 지피고 있다. 먼저 수원~한대앞을 지나는 수인선 3단계 구간이 오는 8월 개통, 연말에는 서울지하철 7호선이 인천 서구 석남동까지 이어진다.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역은 12월 공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GTX(수도권광역철도) B노선은 인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부평' 조감도.

전 송도에서 서울 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경기 남양주(마석)까지 약 80.1km의 급행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오는 2022년 착공 예정이다. 완공시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0분 대다.

지난해 12월과 2월 인천은 부동산 규

제를 피했다. 따라서 중도금대출, 양도세 증가 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인천은 철도 개통 호재, 비규제지역 효과로 수요자들의 관심도 커질 것"이라며 "수도권에서 남은 비규제지역이 얼마 없는 데다 시중에 부동산자금이 풍부해 인천 아파트 분양 열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관심 분양단지인 현대건설은 이달 부평구 백운 2구역 재개발로 '힐스테이트 부평' 1409가구 중 46~84㎡ 837가구를 분양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견본주택은 운영하지 않고, 사이버 모델하우스로 대체 운영된다. 또한 정확한 분양정보 제공을 위해 분양안내 동영상도 통해 입지, 단지 배치, 특장점 등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백운역과 접하고 있다. 백운역에서 지하철 이용시 서울 여의도, 용산, 서울역까지 50분대이

며 한 정거장 떨어진 부평역에서 급행으로 환승시 시간이 더 단축된다. 또한 부평역에는 GTX-B(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이 향후 개통 예정이다.

부평구에서는 SK건설과 한진중공업 컨소시엄이 3월 부개서초교 재개발로 1599가구 중 36~84㎡ 898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1호선 부개역이 가깝다.

도시개발사업 1위 기업인 DK도시개발·DK아시아는 4월 인천 서구 인천공항철도 검암역세권에서 '검암역로열과 크씨티 푸르지오' 4805가구를 공급한다. 사업비만 2조5000억원 규모로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우미건설은 3월 검단신도시 AB12블록에 들어서는 '검단신도시 우미린 에코뷰' 59~84㎡ 437가구를 분양한다. 계양천 조망권과 신설역(예정)이 도보 5분거리로 가깝다. /이규성 기자 peace@

대신증권 휴면계좌 거래 고객 상품권 증정 이벤트

대신증권은 최근 1년 간 거래가 없었던 고객들만을 대상으로 주식거래를 재개하면 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대상은 2019년 이후 단 한번도 주식거래가 없었던 미거래 고객이다. 이벤트 기간인 4월 3일까지 국내 및 해외주식을 100만원 이상 거래하면 신세계상품권 1만원권을 받을 수 있다. 국내 및 해외 거래 합산금액으로 계산해 상품권을 제공한다.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휴대폰 및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을 설치한 후 국내 주식이나 해외주식을 매수하면 된다.

/손엄지 기자 sonumij301

하이투자증권 비대면 신규 고객 현금리워드 이벤트

하이투자증권이 오는 31일까지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신규 고객(스마트지점)을 대상으로 현금 리워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 대상 고객에게 국내 주식 매매 수수료 100원 무료(유관기관 제비용 제외) 혜택과 신용·주식담보대출 이자율을 3개월간 연 2.99%로 제공한다. 3개월 이후에는 신용·주식담보대출 이자율 연 4.5%(개설일 기준 3년간 적용)로 자동 전환되고 이용 고객에게 현금 1만원을 증정한다. 또한 비대면 신규 계좌를 개설만 하더라도 현금 1만원, 주식매매 금액 100만원 이상시 현금 2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타 제휴 채널(OK 캐쉬백, CJ ONE)을 통해 이벤트 신청을 한 경우에는 현금이 아닌 해당 제휴 채널의 포인트로 지급한다. /송태화 기자 alvin@

키움증권, 작년 영업익 4737억 '역대 최대'

전년비 63.92% ↑ ... 리테일 호조

키움증권은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익이 4737억원, 순이익 3628억원을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전년 대비 각각 63.92%, 87.75% 증가한 규모로 창사 이래 사상 최대 실적이다. 자본효율성 지표인 ROE(자기자본순이익률)는 17% 대로 나타났다.

키움증권 측은 "증권사 영업이익이 브로커리지(주식중개)에서 북(book·자기자본) 사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다"면서 "이번 실적은 양적·질적으로 한 단계 성장했다는 분명한 성과이자 지표"라고 평가했다.



리테일의 '전통강자'로 평가되는 만큼 리테일 부문에서 뚜렷한 실적세가 나타났다. 키움증권의 리테일 부문 개인 점유율은 30.3%, 전체점유율은 19.5%를 조사했다. 개인 투자자 셋 중 하나는 키움증권을 통해 거래했다는 얘기가. /송태화 기자 alvin@

LH, 제12기 기술심사평가위원 선정

총 955명 선정, 외부전문가 523명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0년도 공사 및 용역업체 선정심사를 담당할 제12기 LH 기술심사평가위원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LH는 공사 및 용역업체 선정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년 학·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외부 전문가와 LH 내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있다. 12기 기술심사평가위원들의 임기는 3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이며, 이들은 임기 동안 약 350여건, 5조원 규모의 심사를 맡게 된다.

심사분야별 선정인원은 기술형입찰



68명, 건축설계공모 192명, 건설기술용역(단지) 203명, 건설사업관리 230명, 민간사업자 선정 262명 등 총 955명이다. 특히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523명의 외부전문가를 위촉했다.

특히 이번 평가위원 선정 과정에서 외부위원의 연임을 최소화했으며, 내부위원은 연고나 출신대학을 안배해 공정성을 더욱 강화했다.

제12기 LH 기술심사평가위원 명단은 LH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연우 기자